

〈해녀 물에 오르다〉의 비극성 연구

윤 일 수*

〈차 례〉

- | | |
|-------------------------|-----------------------|
| I. 문제 제기 | 5. 백동훈의 불멸 |
| II. 탐색담 양식을 통한 진실의 파악 | III. 성격 결함에 의한 비극적 결말 |
| 1. 보고자에 의한 인물 추적의 근거 제시 | 1. 정의감과 경쟁심의 대립 |
| 2. 백동훈이란 인물의 추적 | 2. 모성애와 황금옥의 대립 |
| 3. 추적 인물의 발견 | IV. 맺음말 |
| 4. 백동훈의 실체 표면화 | ※ 참고 문헌 |

I. 문제 제기

〈해녀 물에 오르다〉는 1967년에 「신동아」에 발표되고, 극단 「자유극장」에 의해 공연되었을 뿐만 아니라, 한국연극영화상을 수상¹⁾하여 상당히 주목받는 작품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오영진의 다른 작품들에 비해 연구가 미비하다. 그것은 1964년에 쓴 라디오 드라마 〈비바리 서울에 오다〉를 각색한 것이기 때문에 내용이 통속적이고 드라마투르기가 미흡하여 연구할 가치가 적다²⁾는 선입견에 기인한 것이 아닌가 한다.

이제까지 이루어진 연구마저도 금옥(金慾)과 애옥(愛慾)이 인간을 파멸시키는 과정을 그린 것³⁾이라 하여 작품 주제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는데

* 영남대학교 강사

1) 서연호(1989), 「오영진의 극작품 세계」, 「오영진전집2」, 348-349쪽

2) 한옥근(1993), 「오영진연구」, 127쪽

3) 유민영(1988), 「설화와 통과례의 세계」, 「한국현대희곡사」, 426쪽 한옥근(1993), 「오영진연구」, 120쪽

그친다. 그로 인해 〈해녀 물에 오르다〉의 형식적인 특성인 비극으로서의 드라마 투르기를 간과해 버리는 경향이 있다. 그러므로 본고에서는 작품의 비극적 성격을 중심으로 드라마투르기를 살펴보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비극은 고귀한 신분층의 이야기라는 전통적 틀에서 벗어나, 일반인을 주인공으로 한 현대 비극의 특성까지 파악이 가능하리라 본다.

이 연구는 두 가지 접근에 의해 이루어 지는데, 하나는 비극의 사건 전개 상의 특성인 탐색담의 과정을 중심으로 살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건 탐색 과정에 이야기를 비극적 결말로 몰고 가는 등장 인물들의 성격 상의 결합을 중심으로 살피는 것이다.

연구의 대상은 1967년에 「신동아」에 발표되었다가, 1989년 「오영진전집」에 재게재된 것을 사용한다.

II. 탐색담 양식을 통한 진실의 파악

보고자가 등장하는 연극은 특정 대상을 추정한다⁴⁾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해녀 물에 오르다〉도 보고자 역할을 하는 강성운이 등장하고, 억만장자 백지윤의 유산 상속자인 백동훈을 찾아 가는 것으로 사건이 진행된다. 이러한 사건 전개 양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1. 보고자에 의한 인물 추적의 근거 제시

〈해녀 물에 오르다〉는 막대한 재산가 백지윤의 유언장이 공개되는 것에서 이야기가 시작한다. 이것에 의하면 유산은 외아들 백경훈이 아니라, 묘령의 인물인 백동훈에게 상속된다. 그렇지만 상속자에 대해 알려진 것이 없다. 이 인물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사건이 진행된다. 그 첫 단계가

4) 알아챈(anagnorisis)이라고도 하는데, 지금까지 모르고 있었던 신상의 비밀을 알게 되어, 사건이 갑작스럽게 변하는 것이다. 사람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운명이 정해진 방향으로 움직일 수밖에 없는 것을 말한다.

공증인 강성운이 고인의 유언에 따라 일을 집행하는 것이다.

강성운 ……(전략)……이미 신문지상에 보도가 됐습니다만, 이 자리를 빌려 한번 더 공개하면…

…(유언장을 읽어 내린다) 「본인 백지운은 본인의 소유재산 전부를 백동훈에게 유증한다」 문제의 초점은 상속자로 지명된 「백동훈」이에게 있습니다. 고인의 막대한 유산은 현실적으로 보나, 상식적으로 생각하나, 고인의 외아들이며, 백씨 가계의 정통을 이은 백경훈씨에게 증여되어야 마땅하구, 또 그러리라고 자타가 인정하구 자신허구 있었는데 난데 없는 「백동훈」이란 어데서 빌어먹던 환상이냐 이말씀이죠. 솔직히 고백했 저 두 모릅니다. 여러분, 백동훈이란 도대체 누굽니까? 물론 여러분이 아실리 없죠……

(해녀. 231쪽, 밑줄 필자:이하 생략)

위덕철 (스포츠 안으로 들어서며) 저 따위가 무진장이예요, 선생님. 문 앞에서 은행 길까지 쭉욱 늘어서 있는 댁쇼.

강성운 그래 그들이 모두 백동훈이란 말이요?

위덕철 아무렴입쇼!

강성운 헛! 헛 수 없지. 그들이 백동훈이라구 주장허는 이상, 만나야지, 그계 법률가의 의무야.

위덕철 (혼잣말로) 헛! 산사태가 난데서 금싸래길 고르라지! 부질없는 짓이예요. 선생님.

강성운 다음!

위덕철 예?

강성운 (단호히) 다음 백동훈일 불러들여요! 제二호, 三호…… 모든 백동훈일 다 만나는 거야.

위덕칠 (불만이나, 어쩔 수 없이) 예…… 차례차례 불러들 입죠, 선생님. (해녀. 233쪽)

그는 베일에 싸인 백동훈이란 인물의 실제 파악에 전력을 쏟는다. 고인의 유언에 따라 유산 상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상속자인 백동훈을 찾아야 하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 백동훈이란 이름을 가진 모든 사람을 만난다. 백동훈임을 자처하고 나서는 사람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진짜는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고, 진짜 백동훈을 탐색해 간다. 이러한 추적 과정에 의해 사건이 이끌어진다. 단순한 인물 추적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작품의 주제를 명료화시키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2. 백동훈이란 인물의 추적

백지윤의 유언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그의 가족에게는 상당한 문제가 있다. 그들 사이에는 가족애란 찾아볼 수 없고, 신뢰감조차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김은정 (회상하듯) 돌아가신 영감은 생시에 집안의 아무도 믿지 않았거든요. 전처 몸에서 본 딸, 사위는 물론 외아들인 경훈이까지두! 운명허신 뒤까지두 유언의 내용은 두말할 것두 없구, 금고 열쇠조차 어다다가 두었는지 집안의 아무도 몰랐다면, 알쪼가 아네요?

(해녀. 237쪽)

노정심 당신의 원수는 문밖에 늘어서 있는 백동훈들만이 아네요. 당신의 진짜 원수는 이 집안에 도사리구 있어요. 집안 것들이 몇 곱절 더 무섭구 음흉허구 잔인하다는 걸 왜 모르셔요? 당신을 금치산자투 법원에 신고해 논 사람들이예요. 내가 시

집왔을 땐, 당신은 이미 재산관리의 능력이 없는 허수아비에 지나지 않았어요. 그게 누구의 짓인지 아세요? 당신은 하루 종일 당신 술상대를 해주는 김씨댁 아저씨들이 고맙겠죠? 이십여 년을 두구 비가 오시나 눈이 오시나, 첫새벽부터 찾아와서 자정이 되도록, 당신과 함께 장안의 술집이란 술집을 두루 편답하는 그 아저씨들이 껍이나 고맙구 알뜰허죠?

백경훈 당신은 뭇때문에 집안 어른을 헐뜯는 거야?

노정심 집안 어른? 당신은 김가집 어른들이 그렇게 알뜰허구 소중허슈? 당신이 취해 들어 올 때 마다 뒤에서 손뼉을 치며 좋아하는 사람이 있다는 걸 알구 있느냐 말이에요!

백경훈 손뼉을 쳐? 누구야, 뒤에서 손뼉을 치는 놈이?

노정심 뒤에서 당신의 술값을 대는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죠!

백경훈 술값을 대? 누구가 내 술값을 댄단 말이야, 응?

노정심 어머니지 누군 누구예요.

백경훈 어머니? (해녀. 239-240쪽)

강성운 그래 영감 내외만 빨갱이 소굴에 남겨두구 젊은 이틀끼리만 도망을 쳤다?

위덕칠 헛! 내외라 급쇼? 헛! 말씀 마세요, 선생님! 고려장을 치뤄 두 유만부동이지, 글썄, 이것이 백년 해로하자던 마누라의 도리일갑쇼?……

……(중략)……

위덕칠 그럼 마님께선 혼자서 피난 나가실 생각인갑쇼? 영감마님 혼자 이 너렁청한 집안에 남겨 두구…… 늙으신 마님을 내버려 두구 혼자서만 집을 나가신단 말씀인갑쇼?

김은정의 소리 아니, 그럼 그 노인을 나더러 어떡허란 말이지?

위덕칠 그 노인? 허, 허…… 그렇겠읍쇼! 전쟁판에서 늙은 영감을 돌

볼 여유가 어디 있사와요!

어, 허허허…… (해녀. 242-243쪽)

이처럼 이기적이고 애정 결핍증에 걸린 가족에게 염증을 느낀 백지윤이 자신들을 신뢰하지 않자, 그들은 많은 불만을 품는다. 그러면서도 그 원인이 자신들에게 있음을 깨닫지 못한다. 여전히 자신의 이권(利權)을 넓히기 위해 상대방을 해치려고 한다.

백지윤은 가족들의 비정함으로 인하여 전쟁터에 홀로 버려졌을 때, 백동훈으로 변성명한다. 유언에 따르면 바로 그 백동훈이란 동명의 인물에게 유산을 상속하는 걸로 되어 있다.

위덕칠 살아서 죽은 목숨이었음죠. 그러나 하늘이 무너져두 살 구멍이 있다고 유언군이 서울을 폭격하는 통에 저두, 영감마님 모시구 뒤늦게 피난길에 나서긴 했지만서두, 휴! 그때 마님의 초라했던 행색이란 쫓…… 쫓, 그 위풍 종으신 수염두 백백 깎으시구, 이 머슴놈의 옷으루 바꿔 입으시구, 이복서 피난 나온 따라지 행셀 했읍죠. 이름 석자조차 바꾸시구……

강성운 이름까지 바꾸셨다?

위덕칠 그러지 았구설랑이야 견뎌배기겠어요? 마님의 본성명이 탄로나는 날엔 그놈들이 그냥 두겠어요?

강성운 그럴테지. (관심 깊이) 뭐라구 이름을 바꾸셨누?

위덕칠 뭐랬더라……옳지! (무릎을 치며 스스로 놀란다) 아! 그때 이름이 바로 백동훈이에요!

강성운 뭐? 백동훈?

위덕칠 아, 예! 선생님이 찾으시는 백동훈이에요! (해녀. 244쪽)

자신의 변성명과 같은 인물에게 유산을 상속한 백지윤의 행위는 상당한 상징성을 띠고 있지 않나 한다.

3. 추적 인물의 발견

백지윤이 제주도에 피난가서 있을 때의 변성명이 백동훈이란 사실을 알게 된 강성운은 진상 파악을 위해 현장으로 간다. 그곳에서 진짜 백동훈을 찾아내어 서울로 데려 온다.

한수덕 ……(전략)……특종이에요, 특종! 헤드라인은 「물에 오른 해녀」…… 어때요? 사장님? 이 해녀가 상속자냐구요? 아네요! 상속자는 어디까지나 백동훈이구…… 백동훈인 고인의 변성명인 동시에 해녀의 아들이에요. 네! 바로 그렇게 되는 게 예요. 하하…… 복잡할 게 없죠. 고인이 해녀 몸에서 본 애기에게 자기 변성명까지 물려준 거죠. 하, 하…… 어마 그것 두 참 유산이네요……상속자, 백동훈인 국민학교 육학년생……해녀는 그 법정 대리인이자 그 어머니. ……(후략)…… (해녀. 247쪽)

진짜 백동훈의 등장으로 인하여 백씨 가족들의 유산을 상속받으려던 기대가 좌절된다. 그들은 여기에 굴복하지 않고 백동훈과 그의 법정 대리인이자, 어머니인 박보패를 모해할 음모를 꾸민다. 그래서 박보패가 법적 권리를 행사하는데, 결격자로 만들려고 한다.

김천석 정심이 의견대루 곧 강성운의 뒤를 따라 황산포루 사람을 보내, 필요한 서류를 거둬오구 또 백동훈의 신원두 조사해 봤지만 십사세의 백동훈이가 뚜렷이 생존하구 있는 건 사실이었어. 아버지께서 피난 중에 쓰시던 이름을 그대루 그 애에게 물려줬다구 해석할 수밖에 없단 말이다.

노정심 아버지가 그런 일을?…… 꿈에두 상상 못할 일이에요. 우리 모두가 강가놈의 속임수에 넘어가구 있는 게예요. 강가놈이

조작해 낸 가짜예요.

김천석 어머니두 같은 의견이지만……가짜라는 것만 가지군 애기가 안되거든. 더 따지구 들어가면 지금 와선 이미 백동훈이란 애가 아버님의 씨든 아니든 그런건 문제가 아니란 말이야. 그 애가 아들이 아니라구 쳐도 백동훈임에 틀림이 없다면 가짜라 두 진짜가 되는 거야.

노정심 가짜라두 진짜라구요? (해녀. 247-248쪽)

성낙현 사진만으로 경솔히 말할 수 없지만, 흔히 있는 증상 아뇨? 일종의 정신 분열증.

김천석 그렇게 진단내릴 수 있소?

성낙현 물론 정신감정을 해봐야겠지만…… 피해망상, 허탈증, 급격한 감정의 양양……이 병에 걸리면 노래두 부르구 발두 구르구, 온 천하가 모두 자기 것 같구, 온 세상이 자길 위해서 만 있는 것 같은 망상과 환희, 그러다가 견잡을 수 없는 우울과 자학, 다시 말하면 燥病期和 鬱病期가 교체되어 온답니다. 이 변화가 주기적이구, 시간적으루 기간이 빠르면 빠를수록 병 증상이 무겁다구 허겠쇼. 요즘 특히 많은 증상입니다. 아마 이 사진대루 해석헌담, 분열증에, (연호를 보며) 색광까지 겪었다 구 볼 수 있겠는데? 그렇잖소, 나선생?

나연호 (이마를 치며) 헛! 색광?

김천석 음! 바로 그 한마디가 내가 바라던 거야. 분열증에 색광! 이 한마디루 난 일진보, 아니 진백보현셈이군! (연호에게) 알겠나, 나서방? 심신장애자는 아무런 법적인 자격을 가질 수 없거든. (해녀. 258쪽)

물질적인 것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백씨 가족에게 있어서는 자신들이

원하는 것만 얻으면 된다. 목적을 위해 무고한 사람을 부정(不貞)한 사람이거나 정신질환자로 단드는 것쯤은 전혀 개의치 않는다. 이러한 행동에는 인간에 대한 사랑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다. 오직 물질적인 것에만 가치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백씨 가족과는 대조적으로 박보패는 인간과 생명의 존엄함을 안다. 아들 동훈이가 실종되었다고 하자, 그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목숨이 위험한 것도 아랑곳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순고한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는 백씨 가족은 그것을 악이용한다.

김천석 (혼잣말처럼) 음…… 성박사의 진단은 필요 없을 지두 몰라, 정신과 의사가 관여할 문제가 아닐지두 모른단 말야…… (보패, 잠수복 퇴악, 갈퀴리, 잠수경을 들고 황급히 다시 등장) 박보패 뚝섬이 어디예요? 날, 뚝섬으루 데려다 주세요……(일동, 무거운 침묵)

박보패 왜, 잠자쿠들 계시죠? 동훈일 그냥 내버려 둘순 없잖어요?(일동, 침묵)

박보패 동훈일 찾아알 게 아네요! (일동 침묵)

박보패 (심각한 불안과 의심으로) 당신들은……당신들은 우리 동훈일 그냥 버려둘 생각이군요? (일동, 여전히 침묵)

박보패 (발광적으로) 아! 무서운 사람들……할아범! 할아범. (보패, 중앙 도어로 미친듯이 뛰어나가) 날 뚝섬으로 데려다 줘요, 할아범! (밖에서 플래시가 터진다. 연호와 화옥, 뒤따라 나간다 - 사이)

성낙현 저! 손에 권 게 뭘니까.

김천석 해녀의 잠수복과 도구들이요……이 밤중에 잠수를 할 모양이 로구먼.

성낙현 (설레설레 머리를 저으며 혼잣말) 확실히 정상이 아닌 것 같

은데.

김천석 그렇게 뵈니까?

성낙현 이 밤중에 물에 들어가겠다고니……

김천석 나두 그렇게 생각했지만 지금은 생각이 달라졌어.

성낙현 ?……

김천석 저 여잔 절대로 정신장애가 아닌 것 같군요, 성박사. (단정적으로) 오히려 그 누구보다두 영리허구…

…그리구……잔인한 여자?…… (해녀. 261쪽, 밑줄 필자)

백동훈이란 인물을 중심으로 이기적인 백씨 가족과 자기 희생적인 박보패를 대비시키고 있다. 이제까지의 이야기 흐름과는 달리 백동훈이란 인물의 실종을 계기로 인간에 대한 사랑과 인간의 존엄함이 부각된다. 백지운은 단순히 백지운의 변성명이나 유산 상속자에 그치지 않는다. 그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는 존재라고 할 수 있다.

위덕칠 (가로막으며 동훈을 다시 앉히고 머리를 쓰다듬는다) 할아버지라닙쇼. 도련님이 아범에게 인사라닙쇼 -- (눈물지으며) 영감마님께서 서울로 환도하신 뒤에도 밤낮 없이 도련님 생각만 허시구 운명허시는 순간까지 도련님을 못잊어 허셨답니다. 이 아범만은 알구 있음쇼. 알고 있사와요. 어! 야속두 허지! 황산포서도 옥동자야 금동자야 하구 귀여워 허시구…… 우리 애기 재롱피는 것만을 낙으로 삼으시더니만……어, 이렇게 몰라뵈게 장성허셨군 입쇼. 영감마님이 살아계셨더라…… (눈물을 닦고 일어나며) 아씨, 이젠 아찐 옛날의 비바리가 아니에요. 자, 일어나서 어서 안으로 들시다. (광우리 등 흩어진 것들을 챙겨들며) 이게 무슨 망령이십니까? 마룻바닥에서 진

질 드시다니! (해녀. 253쪽)

가족들에게 애정을 느끼지 못하던 백지윤은 어린 백동훈에게 진정한 사랑을 발견한다. 앞에서 살펴본 물에 빠진 동훈을 구하기 위해 한밤중에 잠수를 시도하는 박보패의 사랑도 이런 류가 아닌가 한다. 〈해녀 물에 오르다〉의 사건 전개에 주가 되는 백동훈이라는 인물 탐색은 바로 백동훈이 상징하는 참사랑의 발견이라 볼 수 있다.

4. 백동훈의 실체 표면화

백동훈이 상징하는 의미를 깨닫지 못한 백씨 가족은 그의 가치를 피상적인 것으로 판단한다. 그렇기 때문에 유산 상속자로서의 성격에만 의미를 둔다. 그런 면에서 백동훈은 제거되어야만 하는 자신들의 경쟁 상대일 뿐이다. 이런 면에서 박보패도 이와 성격을 같이 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런 와중에 유산 상속 문제로 암투를 벌이던 백씨 가족은 백동훈이 실종되자, 강성운과 박보패를 사기 횡령 및 살인죄로 기소한다. 이들이 유죄로 밝혀지면 백지윤의 어마어마한 재산이 자신들에게 넘어오기 때문이다.

서 기 ……(전략)……동년 칠월 칠일 강성운은……백동훈 소년을
정당한 상속자로 하고 그의 생모인 박보패를 법정 대리인으로
하여 전기 유산 전부에 대한 등기수속을 완료하고 피고인 강
성운 자신은 박보패와 합의하여 그녀의 사실고문으로 자처하
고 마침내 고 백지윤의 유산 전부를 횡령할 목적으로 백동훈
의 살해를 기도하여 一九六×년 八월 二〇일 박보패는 강성운
으로 하여금 백동훈을 시내 유원지 뚝섬으로 유인케 한 뒤 현
지의 혼잡을 이용하여 다치 백동훈 소년이 유기된 것처럼 꾸
미고 동일 하오 五시와 八시 사이에 강성운은 박보패와 미리
합의한 대로 백동훈 소년을 물 속으로 끌어넣어 목을 눌러

교살한 범행을 은닉하기 위하여 동일 하오 九시에서 一二시 사이에 백동훈의 시체를 독섬모처에 암매장하였음. (해녀. 262쪽)

이상은 백경훈이 강성운과 박보패를 고소한 공소장이다. 검찰은 이들을 사기 횡령 및 살인자로 몰고 간다. 그의 논고(論告)에 의하면 이들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단정하고 있다. 실체는 죄를 짓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태가 불리하게 전개되자, 임시 방편(方便)을 사용하여 위기를 모면하려고 한다. 그 수단으로 채택된 것이 박보패의 정신 장애 판정이다.

변호인 ……(전략)……피고인의 정신이상의 증세는 여기에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녀의 증세는 한적한 어촌에서 피고인 자신이 전 쟁터보다도 무섭고 메시껍다고 묘사한 서울로 오자 더욱 악화됐습니다. 그녀는 난생 처음 보는 기계와 사람과 환경에 둘러 싸였습니다. 카메라의 플래시, 각종 파티, TV와 라디오와 자동차 등등의 소음, 신문 기자와 새 가정의 여러 친척과 기부를 강요해 오는 술한 사회단체 등등…… 진실로 섬색시로서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성가시고 귀찮고 짜증이 나고 무서운 환경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돌변한 생활환경과 갖가지 충격은 피고인 박보패의 신경계통을 철저히 파괴하고 말았습니다. 교도소 촉탁의사인 성낙현 박사의 진단대로 실로 상례를 벗어난 비정상적인 일종의 심신 장애라고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해녀. 265쪽)

강성운 (당황해서 보패에게 속삭인다) 보패씨, 이야기 얹는 것이 좋아. 변호인의 변론이 꼭 우리에게 유리해요. 자, 어서 할 말이 없다고 그래요.

박보패 (성운에게) 그럼, 날 영영 미친년으로 만들 생각이세요? 강선

생 아저씨.

강성운 그게 유리허다니까!

박보패 미친 게 유리허다니, 무슨 말이에요? (화를 내며) 내가 왜 미쳤어요. 왜, 생사람을 미친년으로 만들어요!

강성운 보패씨! 글썄 내 말대로 해요! 할 말이 없다고 해요.

변호인 (강압적으로) 부인! 말해선 안돼!

박보패 (그들을 뿌리치고, 재판장을 향하여) 나오리!

변호인 부인!

박보패 당신들은 뭇 때문에 생사람을 미친년으로 만들어요! 난 미치지 않았어요. 내가 왜 미쳐요? 나는 지금 내 눈 앞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꾸 있는지, 나같은 시골계집이 뭘 알겠어요. 그러나 내가 미치지 않았다는 것만은 내가 아무리 무식한 계집이라두 그것만은 알아요. 난 미친년이 아녜요! 나오리! (해녀. 266쪽)

강성운이나 박보패의 변호사는 그녀가 원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박보패는 자신이 결백하기 때문에 재판이 불리하게 진행된다 하더라도 자신이 무고할 뿐만 아니라, 정신 상태도 정상임을 주장하고자 한다. 현상적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본질적인 것이 상처 입지 않기를 바란다. 반면, 강성운과 변호인은 그녀의 정신적 당당함 보다는 가시적인 현상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다. 그래서 재판에 이기기 위해 전력을 기울인다. 박보패에 대한 진정한 사랑의 결핍에서 오는 것이 아닌가 한다. 이것은 박보패에 의해 구현된다.

박보패 아니! 동훈인 내 아들이예요. 아니 내 아들이 아니라두 죽어서는 아니 돼요. 동훈인 죽지 않았어요. 그랜 지금두 어느 바닷가에서 조개탕 물고기랑 잡으며 엄딸 기다리꾸 있을 거

예요. 나오리, 전 미치지 않았어요. 나오리, 동훈일 찾게 날
좀 봐줘요, 나오리! 동훈인 내 아들이예요, 나오리! (간수—,
가까스로 보패를 이끌고 우수로 퇴장. 밖에서 보패의 울음
소리)

강성운 (두 손으로 머리를 싸고) 보패!

재판장 (검사에게) 제 아들이 아니라니? 어떡허죠?

검 사 새 사실이 속속 드러나는데요……어떻습니까? 신중을 기하는
의미에서 한번 더 정신 감정을 받게 힘?

재판장 ……음……(서류를 정리해가지고 검사와 함께 정면 법관 출
입구로 퇴장)

변호사 (보패가 나간 방향을 보며, 배알듯이) 재감정 결과, 정상적인
정신상태람, 이를 어떡하지? 헛! (해너. 269쪽)

처녀의 몸으로 혼자서 백동훈을 키워 온 박보패에게 그의 의미는 상당
하다. 단순한 양자가 아니라, 자신의 생명과 같은 것이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박보패는 백동훈의 안전을 위해 그를 포기한다. 이것은 자기를
희생한 진정한 사랑의 실천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강성운이나 재판장
은 그 의미를 파악하지 못하고, 마찬가지로 검사나 변호사도 재판에 이길
궁리만 한다.

박보패 울음소리를 쫓아, 어둠 속을 더듬어 갔어요……나무 밑에……
몇 백년두 더 됐다는 큰나무 밑에……기저귀에 싸인 갓난애
기……누구가 버렸는지 모르지만…… 죄없는 생명이 거기에
있었어요……어린 생명을 그대루 어둠 속에 버려두구 발길이
돌아서겠어요? 몇 집 없는 동네라 동이 트기도 전에 온 동네
에 소문이 좌악 퍼졌어요. 비바리가 애비없는 애기를 받아왔
다는 거예요……동네 사람들의 손꾸락질과 눈총을 받구 온갖

홍을 다 잡히문서두 나는 이 어린 생명을 버릴 수가 없었어요……며칠이 지난 뒤 얘기를 업구 황산포 영감마님 덕으루 갔어요. 영감마님께 여쭙 볼 생각이었어요. 나으리, 영감마님은 제가 그토록 믿구 의지허던 훌륭한 분이었어요. 덕칠이 할 아범이 이상헌 눈으로 저를 봤지만 전 모른 척허구 얘기를 업구, 영감마님 방으루 들어갔어요.

성낙현 (자기도 모르게 끌려들어) 영감마님이 뭐라구 하시던가?

박보패 제가 어둠 속에서 생각했던 바루 그거예요. 하늘이 주신 생명을 버릴 수가 있느냐는 거예요. 다음날부터 저는 뼈젓이 얘기를 업구 매일 십릿길을 영감님덕까지 가서는 영감님께 얘기를 맡기구 집안 일을 봤어요……그러던 어떤날, 영감마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보패야, 애기에게 이름을 지어 줘야겠구나’하시구는, 그 뒤 며칠을 두구두구 생각하시더니 「동훈」이가 어떠냐는 거예요.

성낙현 동훈이……동훈이가 그렇게 해서 탄생됐구면…… (해녀. 272 - 273쪽)

그렇지만 박보패의 진정한 사랑을 알아주는 사람도 있다. 그것은 바로 백지윤이다. 그가 자신의 친혈육을 두고 백동훈을 유산 상속자로 지목한 것도 이러한 이유에서가 아닌가 한다. 백지윤이 추구한 것, 그리고 박보패에 의해 구현되는 것이 바로 참사랑이다. 나아가 이것은 이 작품의 주제가 되기도 한다.

5. 백동훈의 불멸

백경훈은 박보패가 죽자, 그녀를 포함한 일로 인해 죄의식에 사로 잡힌다. 그러던 중 그녀가 죽었다는 소식을 접하고 정신 이상 증세를 보인다. 그 사실을 백씨 가족은 무신경하게 받아들이며 냉정한 태도로 유산 상속

문제를 의논한다. 이들에겐 가족애란 존재하지 않는다.

백화옥 어떻게 된 거예요, 언니?

노정심 (몸을 덜며) 아! 무서워! 화옥이!……보패가 죽었다구 말했
을 뿐이야……말이 끝나기두전에, 갑자기 내 목을……내 목
을……아! 그 눈동자!

백화옥 ……

김은정 (제자리에서 차갑게) 올 것이 온 거 아냐?

노정심 ……

김은정 내 말이 너무 잔혹할가?

노정심 (말끔히 은정을 바라보다가 차갑게)……그렇죠. 올 것이 왔을
뿐이에요.

김은정 (화옥을 목살하고) 이 집에 남은 사람이라군, 이제 정심이와
나, 두 사람 뿐이야.

노정심 ……

김은정 (사무적으로) 의논껏 헐 수밖에 없잖어? 이제 더 싸울 건 없
지 않어?

노정심 (역시 사무적으로) 어머니 말씀이 옳아요. (해녀. 281-282
쪽)

백씨 가족의 냉혹함과 대조적으로 백지윤, 박보패, 위덕칠 등의 인물
은 인간미가 넘친다. 그들 사이엔 끈끈한 애정이 존재한다. 이것이 백동
훈이란 인물 추적을 통하여 작가가 드러내려는 것이다. 박보패의 백지윤
에 대한 참사랑은 백경훈에 의해서도 인정된다.

백경훈 재판장이 아무 말 없이 날 노려본단 말야. 우리가 헌짓을 못
마땅해 허시는 게 아닐까?

노정심 아니, 당신은 지금와서, 사내답지 않게, 후회하는 거유? 강가

놈과 삼년을 고발한 걸 겁내 시우?

백경훈 겁내는 건 아니지만 그래두 그 섬 색시라는 년은 삼년 동안이나 아버지 사증을 들지 않았어? 집에서 들은, 〈소리를 죽여〉 전쟁중엔 아버지 행방조차 찾아볼 생각두 았구 버려 두었던 걸 그래두…… (해녀. 277쪽)

박보패의 참사랑은 상대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로 까지 확산된다. 모든 사람이 죽었다고 믿고 있고, 그 일로 인해 재판정에 까지 섰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백동훈의 생존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가지고 있다.

강성운 그러나, 박보패는 눈을 감는 순간까지 동훈이가 살아 있다구 굳게 믿구 있었어요. 하늘이 주신 생명이니 절대로 죽을 리가 없다구 굳게 믿구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걸……(주머니에서 도장 두 개를 꺼내, 할아범에게 준다)

강성운 할아범이 이걸 좀 맡아 두라는 거야.

위덕칠 (도장을 받으며)……이게 뭐니까?

강성운 보패씨와 동훈이와 인감도장이요. 할아범밖에 믿을 사람이 없다는 거야……동훈이가 돌아올 때까지……

김은정 동훈이가 돌아와요?

강성운 (엄하게) 내가 죽이지 않은 이상, 동훈이는 어딘가에 있을 것이 아닙니까? 보패씨가 믿구 있듯이 황산포에서 혼자 엄마를 기다리고 있을지두 모르죠. (해녀. 279-280쪽)

백동훈의 생존에 대한 박보패의 절대적인 믿음은 참사랑을 간직하고 있는 위덕칠에게 까지 확산된다. 그는 백동훈에 대한 끝없는 기다림의 상징으로 온 집안의 불을 밝힌다.

위덕칠 ……영감마님…… 덕칠이에요, 아범이에요. 집안이 조용해졌

읍조?……모두 안방에 모이셨답니다. 큰방 마님, 아씨, 사위 양반…… 온 식구가 오랜만에 한자리에 모인 걸입쇼. 날이 새면 서방님두 제 정신이 가라앉으면, 황산포 도련님두 아무 두려움 없이 돌아오실 거급쇼……마님, 아범이 여기 있사와요. 마님……(안방 더욱 어두워진다)

위덕칠 (조용히) 애들아, 불은 왜 끄는 거야.

옥 분 할아버지두 주무셔야 잠아요?

위덕칠 자긴 어떻게 잔단 말이나, 옥분아, 이년아!

옥 분 (입을 빼죽하고) 미안해요, 할아버지. (다시 불을 밝힌다) 위덕칠 옳지! 황황 불을 밝혀야지. 좀 있음 모두들 이리루 나오신단다…… (해녀. 282-283쪽)

〈해녀 물에 오르다〉의 등장 인물 중에서 인간적인 면모를 보여주는 백지윤, 박보패, 백경훈 등이 차례로 희생되고,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위덕칠이 백동훈을 기다리는 행위는 비록, 대부분의 등장인물들이 비극적인 운명을 맞이했지만, 미래 희망적인 결말을 상징한다고 할 수 있다.

III. 성격 결함에 의한 비극적 결말

탐색담 형식으로 이야기가 전개되는 〈해녀 물에 오르다〉는 백동훈이란 인물의 비밀이 밝혀지는 과정에 여러 등장 인물을 비극⁵⁾으로 몰고 간다. 이것은 각 등장 인물의 개성적인 성격이 강한 대립을 이루는데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성격 상의 대립은 두 가지 유형으로 나타나는데, 하나는 법 질서를 준수하려는 강성운과 지나친 경쟁심에 사로잡힌 김천석

5) 비극적 결함(hamartia)이란 주인공이 자기 자신도 모르는 가운데 저지른 도덕적인 잘못 혹은 어떤 악에서도 벗어나 있는 고의성이 전혀 없는 비의도적인 행위에 의해 저지른 도덕적 잘못이다. 민병욱 (1995), 「연극읽기」, 238쪽

사이에서 일어나고, 다른 하나는 무한한 모성애를 가진 박보패와 황금옥에 눈이 먼 김은정 사이에서 일어난다. 여기에서는 이러한 인물 대립이 사건을 어떠한 결말로 이끌어 가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1. 정의감과 경쟁심의 대립

프롤로그에 드러나는 바와 같이, 돌입부에서 보고자역을 하는 강성운은 십 여년 전 백지윤이란 인물의 유언 작성에 입회한 일로 인해, 그 유서의 집행 문제에 말려든다. 그 일을 수행하는 과정에 젊은 법률가인 그는 절대적인 법 질서의 신봉자답게 모든 일을 법에 따라 처리한다.

김천석 너무 많다는 것은 곧 하나두 없다는 것과 마찬가지로 아닌가?
강성운 그런 철학적 견해로 해서 엄연한 사실을 묵살하거나 부정할
순 없습니다. 법은 하나이자 전부입니다. 우리들 법률가의
의무는 수백 수천의 사실 가운데에서 하나의 공식을 발견하여
야 하는 모든 과학자의 경우와 다를 바 없지 않습니까? (해
녀. 231쪽)

강성운 ……전략……나에게 있어서는 법은 곧 하나이자 전부인 걸
어떡허지? 더구나 엄연히 문서화된 이상 법의 권위를 무시할
순 없잖나 말야! 도덕이 개입할 여지가 없단 말야. 법은 하나
이자 전부이거든! (해녀. 241쪽)

그는 젊고 패기에 찬 인물로, 그에게 있어서 법은 하나이자, 전부이다. 따라서 법 질서에서 이탈되는 행위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인물이다. 이처럼 고지식한 강성운이 유언을 집행하는 과정에 백씨 일가와 부딪히게 된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김천석이다. 그는 백지윤의 매부로 백씨가족의 법률 고문 역할을 한다. 강성운과 백지윤의 유산 상속 문제를 놓고

참여한 대립을 보인다.

김천석 성박사, 선생은 내가 왜 이 유산 문제에 개입했는지 잘 모를
저요. 매부의 재산이라, 뭐나 바라구 이러는 줄 아쇼? 천만에!
단순한 경쟁심이죠. 장기를 두는 걸 구경하다가, 저두 모르게
장기판을 도맡아 버린 친구와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더구나
상대자가 아직 입에서 젖비린내 나는 공증인 사무소 서기 아
니요. 이제 내가 물려서게 됐어요? 저 젊은 친구가 끝까지 타
협 하지 았구, 법을 들구 나서니까 나두 헐 수 없이 법으루 대
결허는 거죠. 저 친구가 주장허니가 난 반대허는 것 뿐이에요.
이제 이덕 유산문제에 개입한 이유예요. 그밖엔 아무 이유두
없죠. 나서방, 자네두 오해말구 알아 뒤. 일단 출전한 이상 경
기에서 이겨야 한다는 것뿐이야. (해녀. 259쪽)

얼핏보아 김천석이 유산 상속 문제에 개입한 것은 매부의 재산에 관심
이 있어서 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그렇지 았다. 김천석 자신이 이
야기하고 있는 바와 같이 경쟁심 때문이다. 백지운의 유산 문제는 법률
가의 원로와 풋내기가 대립적인 입장에 서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누구
도 양보하려고 하지 았는다. 그중 원로에 속하는 김천석으로서는 더욱
이기길 원한다. 그의 이러한 경쟁심이 백씨일가를 비극으로 몰고 가는데
일조(一助)를 한다. 경쟁심에 눈이 어두워 사건 해결을 위한 현명한 방
안을 간과해 버렸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맹목적인 법의 신봉자 강성운과 병적인 승부욕의 소유자 김
천석의 대립은 〈해녀 물에 오르다〉를 비극적 결말로 몰고 가는데 상당한
역할을 한다. 이것은 비극적 사건 전개가 등장 인물의 성격적 결함에 기
인한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예라 할 수 있다.

2. 모성애와 황금옥의 대립

백동훈은 박보패의 양자이자, 백지윤의 상속자이다. 그런 만큼 그는 이중적 가치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박보패의 입장에서는 그는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귀중한 존재이다.

박보패 동훈이가 내 아들이 아니라는 걸 아는 날엔 서울 사람들이 그냥 두겠어요? 큰방 마님, 아씨, 아저씨, 사위양반! 아! 무서운 사람들이예요. 그들이 그애를 내 품에 맡겨두구 모른 척 하구 있겠어요? 어떻게 기른 동훈이라구 그애 뺏겨요? 동훈일 잃어버린다면, 나는 누구를 믿구 살어요! (해녀. 273쪽)

처녀 혼자의 몸으로 자식같이 길러 왔으므로, 그녀 인생의 전부를 차지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녀의 백동훈을 향한 사랑에 비례하여 보호 본능도 강하게 일어난다. 이러한 박보패의 무한한 모성애는 김은정의 황금육과 정면 대결을 벌인다. 그것은 백동훈의 또다른 측면인 물질적 상징성에 기인한다.

김은정은 백지윤의 미망인으로, 황금을 위해 젊음을 희생한 인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언에 따르면 유산을 상속받을 수가 없다. 그것은 백동훈 때문이다.

김은정 ……전략……한선생, 난 송장 같은 늙은일 위해서 꽃 같은 청춘을 바쳐가며 삼십년이란 세월을 이 집을 지켜 왔어요……이 집을 지켜온 사람은 나예요! 아무도 날 여기서 몰아내진 못해요! (해녀. 238쪽)

노정심 아시겠어요? 스물이 갓 넘은 젊은 여자가 뒷 때문에 뭘 바라구 환갑을 바라보는 노인에게 시집을 와서 삼십년이란 세월을 썩었겠어요? 뻔헌 노릇이지. 당신이라는 귀찮은 존재만 없었던들…… (해녀. 240쪽)

그녀의 입장에서는 백동훈은 박보패와는 달리 자신의 인생을 빼앗아간 자로 제거되어야 할 존재이다.

이와 같이 백동훈을 둘러싼 무조건적인 모성애의 소유자 박보패와 맹목적인 황금옥의 추종자 김은정의 대립은 〈해녀 물에 오르다〉를 비극적 결말로 이끄는 데 크게 작용한다. 이것은 등장인물의 성격적 결함에 의해 사건이 비극적 결말을 맞게 되는 것을 잘 드러내 주는 예라 할 수 있다.

IV. 맺음말

오영진의 많은 작품이 상당한 주목을 받는데 비해, 〈해녀 물에 오르다〉는 내용이 통속적이고 드라마투르기가 약하다고 인식된 관계로 인하여 적극적인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고는 〈해녀 물에 오르다〉의 비극적 성격에 초점을 맞추어 사건 전개 양상과 등장 인물의 성격에 관하여 살펴봄으로써 이에 대한 재평가를 내리고자 했다.

먼저, 사건 전개를 보면 〈해녀 물에 오르다〉는 탐색담 양식에 의해 백씨 가족을 둘러싼 비밀들을 하나씩 밝혀내는 것으로 이루어져 있다. 프롤로그에서 강성운이 밝힌 바와 같이, 유서 집행을 위해 백지윤의 유산 상속자 백동훈을 찾아가는 것으로 진행된다. 그 과정에 백씨 일가의 비인간적이며, 황금만능적이며, 애정결핍적인 가족들의 성격이 하나씩 드러난다. 그 결과 백씨 일가 사이에 백동훈이 등장할 수밖에 없었던 필연적인 이유가 설명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작가의 드라마투르기가 돋보인다.

다음, 비극적 결말은 등장 인물들의 성격적 결함에 의한 필연적인 결과임이 드러난다. 이것은 상반된 두 인물이 팽팽한 대립을 보이는데 기인한다. 강성운과 김천석, 박보패와 김은정의 대립이 그것이다. 유서 집행을 둘러싼 법 질서를 수호하려는 강성운과 승부욕에 사로잡힌 김천석의

대립은 사건을 비극으로 몰고 가는데 크게 기여한다. 여기에 사건 전개
의 핵심적인 인물인 백동훈을 둘러싸고 무목적적인 모성애를 가진 박보패
와 탐욕스런 황금옥의 소유한 김은정의 대립이 맞물려 〈해녀 물에 오르
다〉의 많은 등장인물이 비극적 운명을 맞을 수밖에 없지 않았나 한다. 이
러한 인물 설정은 사건을 비극으로 몰고가기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해녀 물에 오르다〉가 이제까지 통속적이라고 도외시한 것은 잘
못된 견해라 정정되어야 한다고 본다.

※ 참고 문헌

- 곽복록(1988), 「그리스 비극의 변모」, 「희랍비극1」, 서울, 현암사, 438
-457쪽
- 레이먼드 윌리엄즈, 임순희옮김(1988), 「현대비극론」, 서울, 학민사
- 민병욱(1995), 「연극읽기」, 서울, 삼영사
- 서연호(1989), 「오영진의 극작품 세계」, 「오영진전집2」, 서울, 범한서
적주식회사, 345-355쪽
- 유민영(1973), 「오영진론」, 「현대드라마」, 서울, 한신문화사, 69-87쪽
- 유민영(1988), 「설화와 통과례의 세계」, 「한국현대희곡사」, 서울, 기
린원, 417-438쪽
- 이근삼·서연호편(1989), 「해녀 물에 오르다」, 「오영진전집1」, 서울,
범한서적주식회사, 228-283쪽
- 이상호(1993), 「희곡원론」, 서울, 도서출판 동지
- 조우현(1988), 「그리스 비극의 본바탕」, 「희랍비극1」, 서울, 현암사,
367-390쪽
- 한옥근(1993), 「오영진연구」, 서울, 시인사
- 허영(1990), 「연극론」, 서울, 한신문화사